

새 언약의 약속

핵심 구절: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33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31:27-34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출애굽기 19:5,6).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라." 8절

언약에 대한 순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서약을 어겼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본 교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집안 모두에게 미래에 세워질 새 언약에 대해 말한다. (예레미야 31:31).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대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므로 첫 언약보다 우월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언약—“율법”의 목적이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궁극적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임을 설명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는 참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어, 오실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가두어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21-24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생긴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한 중재자가 필요할 것이다. 모세는 원래 언약의 중재자였으나, 하나님은 이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더 나은 중재자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신명기 18:15-19; 사도행전 3:22,23; 디모데전서 2:5). 새 언약은 먼저 이스라엘과 맺어지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온 인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17; 20:6). 새 언약이 제공하는 생명의 혜택을 누리려는 각 사람은 순종을 요구받을 것이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것은 장차 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5-7). 교회 계급의 발전은 중재자의 도움으로 새 언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변호자[위로자 또는 도우미, 중재자가 아님]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요한일서 2:1

새 언약을 통해 온 인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려는 우리의 소망에 충실합니다. 요한계시록 21:1-5